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16-24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요 16:16)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두번의 사이에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지만, 곧이어 기쁨과 환희속에서 부활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첫번째 ‘조금 있으면’ 만을 보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번째 ‘조금 있으면’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 16:20)

얼마 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맞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는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모호한 것이 없었습니다. 양쪽을 다 좋게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잘못된 비리들이 드러나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근심하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여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요 16:21)

임산부들은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걱정을 합니다. 다가올 그 해산의 고통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낳은 기쁨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잊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끔찍한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언급하십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 16:23-24)

우리에게 가장 큰 복종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요 16: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라’ 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누군가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도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2-33)

이제 잠시 후면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그토록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고 있기에 주변 상황에 결코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신뢰한다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단 11:32)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 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

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고, 회개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창 12:3)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모든 계획을 믿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중, 옥중 서신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감사하라’, ‘기뻐하라’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본인은 감옥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염려한다면 그것은 곧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에 우리도 승리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제를 통틀어서 이겼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워싱턴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라며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당시의 상황이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3. 오늘 본문(요 16:33)을 모든 목장 식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두 번 읽어 봅시다. 지금 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오늘 말씀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고, 또 힘이 되는 말씀(단어)이 어떤 부분인지 진솔하게 이야기해 봅시다.